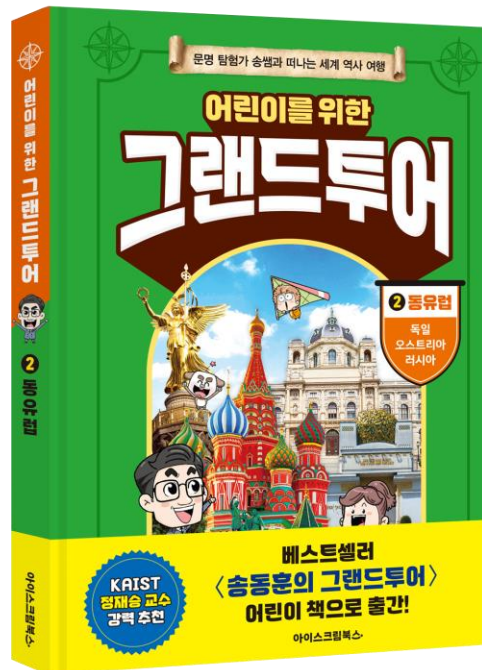


어린이를 위한 그랜드투어

2 동유럽

독서지도안



송동훈 원작 | 김우람 글 | 윤재홍 그림

#KAIST 정재승 교수 추천 #어린이 세계사 #동유럽 역사 여행

책 소개



어린이를 위한 고품격 세계 역사 여행,
문명 탐험가 송동훈의 '그랜드투어'로 초대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그랜드투어〉 시리즈는 문명 탐험가 송동훈 선생님(송쌤)이 가이드가 되어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장소를 여행하며 관련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시리즈의 ②권 『동유럽 :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서는 분단을 넘어 통일 시대를 연 유럽의 중심지 독일, 합스부르크가 남긴 위대한 문화의 나라 오스트리아, 혁명의 열정을 간직한 동토의 제국 러시아로 떠납니다. 송쌤의 자세하고 유쾌한 설명과 함께 풍부한 현지 사진 자료까지 더해져 책만 읽어도 생생한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1

동유럽(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 있는 건축물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아래 사진을 보고, 빈칸에 각 건축물의 이름과 어느 나라에 있는지
적어 보세요.



㉠



(예)

독일, 브란덴부르크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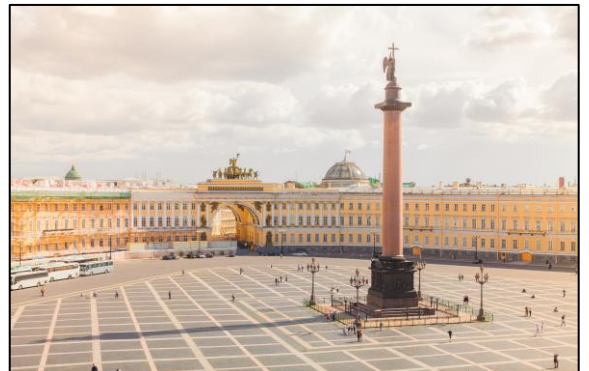
㉡



㉢



㉣





책을 읽기 전에

2

역사 속 인물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아래 사진을 보고, 인물의 이름과 업적을 적어 보세요.

1



2



3





책을 읽으면서

- 1 동유럽을 대표하는 세 나라 -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주요 여행지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적어 보세요.



독일 - 베벨 광장



오스트리아 - 호프부르크 궁전



러시아 - 붉은 광장





2 인물과 관련이 깊은 여행지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 오토 에두아르트
레오폴트 비스마르크

베를린에 있는 전승 기념탑은 1871년
독일 연방이 프로이센 왕국을
중심으로 통일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조형물이에요.

㉡ 루트비히 판 베토벤

붉은 광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큰 광장이에요. 옛날에 러시아가
외국 침입자들과 싸울 때,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시민들과 군대를
모아 나라를 지켜냈어요.

㉢ 구스타프 클림트

이 음악가는 귓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무렵, 오스트리아 빈 외곽에 있는
하일리겐슈타트 숲길을 걸으며
영감과 위안을 얻었어요.

㉣ 미닌, 포자르스키

1812년 쿠투조프가 이끄는
러시아군은 보로디노 평원에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와 맞서
싸웠어요.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결국 나폴레옹의 침공을 막아냈지요.

㉤ 미하일 쿠투조프

분리파 회관은 전통적인 예술관에서
벗어나, 새롭고 자유로운 예술을
꿈꾸던 분리파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려고 만든 공간이에요.



책을 읽고 나서

1

우리는 책을 읽으며 동유럽 곳곳을 여행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를 그려보고,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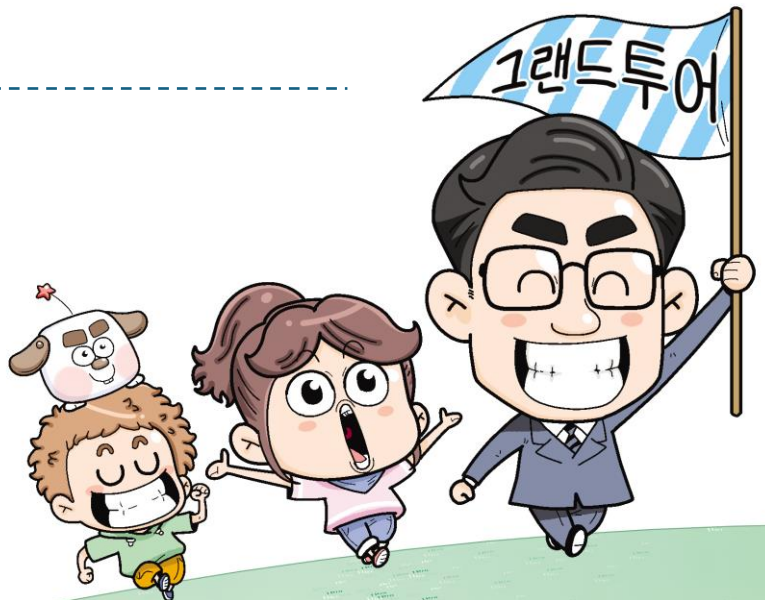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_____ (이)다.

그 이유는



- 2 책에 등장하는 역사 속 인물 중 1명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써 보세요.



책을 읽기 전에

1

- ㉠ 독일, 브란덴부르크 문
㉡ 오스트리아, 분리파 회관

- ㉢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
㉣ 러시아, 겨울 궁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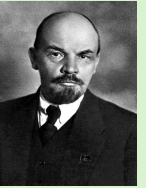
㉠

- ★ 인물 이름: 마르틴 루터
★ 주요 업적: 마르틴 루터는 독일의 성직자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가톨릭교회의 잘못을 지적한 '95개 반박문'을 발표했다. 이는 훗날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고,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이끌었다.
또한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사람들이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했다.



㉢

- ★ 인물 이름: 막시밀리안 1세
★ 주요 업적: 막시밀리안 1세는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까지 신성 로마 제국을 다스렸다. 그는 결혼을 통해 합스부르크 가문의 세력을 크게 키웠고, 여러 나라와 외교를 잘해서 오스트리아를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



㉣

- ★ 인물 이름: 블라디미르 레닌
★ 주요 업적: 러시아 혁명을 이끈 지도자로, 1917년 황제를 몰아내고 노동자와 농민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 '소련'을 만들었다. 당시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을 세상에 퍼트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책을 읽으면서



1

㉠ 독일 - 베벨 광장

아돌프 히틀러는 전체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독재 정치를 이어갔다. 1933년 5월,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베벨 광장에서 자신들의 사상과 다른 주장을 펼치거나 유대인들이 쓴 책을 불태우는 '책 화형식'을 진행했다. 오늘날 베벨 광장에는 텅 빈 서가가 남아 있다.

㉢ 오스트리아 - 호프부르크 궁전

호프부르크 궁전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전이다. 약 650년 동안 이어진 합스부르크 왕가는 프란츠 요제프 황제 사후 2년 만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황제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고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요제프 황제는 유럽 전역을 휩쓴 변화의 물결 속에서 황실 가족이 연이은 비극을 맞자, 조카 부부를 암살한 세르비아에 전쟁을 선포했다. 이 전쟁은 제1차 세계 대전으로 번졌고, 4년 동안 이어진 제1차 세계 대전은 오스트리아 제국의 해체와 합스부르크 왕가의 몰락으로 끝이 났다.

㉣ 러시아 - 붉은 광장

붉은 광장에는 미닌과 포자르스키 동상이 있다. 이들은 러시아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군을 조직해 싸웠고, 나라가 회복되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2

(㉠) - A / (㉢) - C / (㉡) - E / (㉣) - B / (㉠) - D